

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440억원 지원

전북자치도, 6일부터 3분기 순차적 접수... 창업·경영안정·벤처기업 대상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440억 원 규모의 '2026년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오는 7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창업기업의 시설투자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440억 원으로, 자금 유형별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공장 신·증축과 부지 매입, 기계설비 구매 등 시설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협약금리 4.35%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2.17%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업당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전북특별자치

도의 이차보전을 2~3%를 제외한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도내 우수 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약금리 4.35% 가운데 3.18%를 이차보전해 기업은 1.17%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금별 신청 일정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7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

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분기별 예산이 남을 경우 해당 분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가 접수가 진행되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와 전주유통센터에서 전북 대표 제철 과일인 '예담채' 복숭아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전북 제철 복숭아 특별판매전

전북농협, 8일까지 수도권·전주 하나로마트서 판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와 전주유통센터에서 전북 대표 제철 과일인 '예담채' 복숭아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철을 맞아 전복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복숭아는 여름철 대표 과일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수분과 각종 당류, 비타민 등이 풍부해 무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하고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전북농협은 전복산 복숭아가 지난해 약 4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대표 품목인 만큼 지속적인 마케팅과 판촉 활동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연중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신입행원 20명 정식 임용

지역인재 70% 이상 채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65기 신입행원 정식 임용식을 개최하고, 8개월간의 교육과 수습과정을 마친 신입행원 20명을 정식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임용된 신입행원들은 2개월간의 직무연수와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본부와 영업점 등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금융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뒤 각 부서에 정식 배치됐다.

특히 제65기 신입행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디지털 금융 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며 미래 금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65기 신입행원 정식 임용식을 개최하고, 8개월간의 교육과 수습과정을 마친 신입행원 20명을 정식 임용했다.

을 이끌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이날 임용식에는 박춘원 은행장과 정원호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입행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신입행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감각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금융 경험을 혁신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행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과 지역사회의 성장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이번 신입행원 채용에서 전체의 70%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로 선발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보, 7월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 운영

전북신보보증재단은 불법 보증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가 증가하면서, 재단은 보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

불법 보증브로커들은 컨설팅업체를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선 지급받거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허위 서류 작성을 제안하며 대출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보증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신보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고객 알리톡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예방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 현수막 신고 접수 등 불법 브로커 적발과 차단 활동도 강화한다.

재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도 실시해 방문 및 전화 상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자인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고창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특산품과 체험·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실증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는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충북 보은군, 전남 진도군 등 3개 과제만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총 4억3천만 원(국비 3억 원, 지방비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전북디자인센터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함께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 브랜드, 유통, 체험·관광을 연계한 협업형 지역경제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고구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 고도화, 지역 판매·체험 거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판매·체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소비 전환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한다.

/오상근 기자

라오스 국적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고, 올해 6월 15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공단이 라오스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응성을 인정할 때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 가입자도 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해 반환일

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농어촌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라오스 근로자들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상응성도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농어구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이후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 요구가 지속되자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 상응성 인정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공단은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 제도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라오스 사회보장청 연금제도 최고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갖고 연금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등 상응성 인정을 위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